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모든 것에 속지 말고 근본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근본에다 맡기고 살라

여러분과 더불어 한마음 법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도반으로서 같이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지구가 버스라면 한 버스 안에 타고 그 버스가 어디로 갔다가 구르는지도 모르면서 네 종파 내 종파, 너희 종교 내 종교 찾을 바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탐구하고 오직 나로부터 나를 알고, 나를 앎으로써 내 가정이 있고 상대가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세계가 있고 우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견고하게 마음에 다짐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역사를 잘 가져오고 못 가져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또 불제자로서 문을 찾아서 들고 문을 찾아서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강설만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의 법설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법설인 것을 아시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영원한 내 길을 걸어가는 데에 사심 없이 부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며, 일체 만물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것을 기필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밥이나 놓고 떡이나 놓고 비는 것이 종교가 아니고 또 불교가 아닙니다. 밥이 있기 이전에 나 자체를 깨닫는다면, 아니 깨닫기 이전에도 나를 믿고 나부터 바로 발견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의식 자신이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심봉이 없이 맷돌 굴러가는 법도 없고 심봉이 없이 차가 구르는 법도 없고 심봉이 없이 이 모두 천체가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핵이 없이 에너지가 없고 에너지가 없이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질을 만들어 낼 수도 없고, 우린 천체물리학이면서 또는 과학이면서 공학이면서 지리학이면서 천문학이면서 의학입니다. 이것을 통틀어 하나로 뭉쳐서 지금 한마음에서 물리가 터지기를 기원하면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이 터지면 바로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 둘이 아니게 나툼을 알게 되고, 둘이 아닌 나툼을 알게 되면 열반을, 열반 아닌 열반을 알게 되고, 그 뒤에는 그대로 여여함을 알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찰나생활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고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바로 그 문제를 자신으로서 그대로 여여하게 타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뜻을 알게 되면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어서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삼천 년 전 부처님이 아니라 현실의 자기 자신으로서 부처님의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계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예를 들어서 금강경이든지 화엄경이든지 법화경이든지 또는 반야경이든지 모든 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그 뜻을 모른다면 법설이 아니라 바로 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믿고 타의에서 구하는 타력 신앙이 돼서는 안 되며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력 신앙으로서 행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기초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몸을 받아 가지고 나올 때 거기는 의학이 종합되는 문제가 있겠죠. 정자 난자는 바로 엄마 아버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있는 데에 근본적인 영원한 자기의 불씨가 거기 들지 못하면 이 세상에 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합이 한데 계합이 될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탄생할 때에 바로 과거에 자기가 살던 그 의식과 그 핵이, 바로 그 마음이 동시에 거기 계합이 돼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등장을 할 때에, 즉 말하자면 엄마 아빠의 그걸 받아서 수십억 마리가 한데 모일 때에, 몸 받을 때 그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가 딱 몸을 받는 겁니다. 그게 엄마 아빠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없어진 그 자체가 왜 내 몸, 형성되는 그 몸에 올까? 그것이 바로 자기가 과거에 살 때에 인(因)으로 인해서 과(果)가 뭉쳐진 이 몸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속상한 거, 가난이 오는 거, 또 괴로움이 오는 거, 고독함이 오는 거, 허무감이 오는 거 모든 일체가, 또 병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부딪고 아픔을 겪는 이 고통이 바로 그 인으로 인해서 과가 된 그 자체, 악업 선업이 뭉쳐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는 대로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그것이 자꾸자꾸 형성돼서 자꾸 나오니, 마음이 나오니, 그 잠재의식 속에서 자꾸 현재 의식으로 나오니 그거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놔라, 쉬어라 이랬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 그래서 그 마음과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핵과 에너지가 이렇게 풍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끄달리면 그 도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는 데 속지 말라 하신 뜻은, 지금 네 마음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느니라. 그랬으니 공했느니라. 전체 일체가 다 공했으니 거기에, 마음이 나오는 거에 속지 말라. 개별적인 하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해서 포괄적인 하나로 돌아감이 바로 주인공이니라. 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공한 데다가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 그 자리에다가 바로 놓고, 맡겨 놓고 '당신밖에 나를 형성시킬 수 없고, 당신밖에 나를 이익하게 이끌어 줄 수 없고, 당신밖에 내 병을 낫게 해 줄 수 없고, 당신밖에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없고….' 모든 것에 속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맡기고 살아라. 일체 문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 자, 문을 찾아 들어오려고 하는 자는 보살 될 자격도 없거니와 불자 될 자격도 없느니라. 이 말이 틀리걸랑 항의하세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벽도 없고 봇장도 없고 다 없어. 툭 터졌어. 툭 터졌으니 거기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그대로 여여함이요, 삼재가 드는 거, 운명 팔자 이런 것도 다 없느니라. 공했어. 어디 붙을 자리가 없어. 병도 붙을 자리가 없고 가난도 붙을 자리가 없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한 생각이 그렇게 부족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완벽하다면, 그대로 여여하다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남의 말을 들으면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의 말을 들으면 받아들이되 모든 것을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생기며 바로 천백억화신으로서, 내 몸뚱이 인으로 인해서 과가 생긴 그 악업 선업의 생각들이 전부 보살로 화해서 천백억화신이 돼서 나고 들 때에 삼십이상이 구족하고 삼십이응신이 바로 화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유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생활이 그냥 참선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묵선이자 행선이고 행선이자 바로 참선인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일어나는 모든 거, 여러분은 아프면 아픈 대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죠. 어디서 이 아픔이 나온 것인가?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에 백지 생각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으셨죠. 글자만 풀이하느라고 야단법석이지 그 글자를 쓴 저 종이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데에 어디서 왔는

☞ 22면으로 계속

